4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대한 제국은 1910년에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 이후 일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식민 통치를 하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고 어떤 고통을 당하였을까?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설립 이후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빼앗긴 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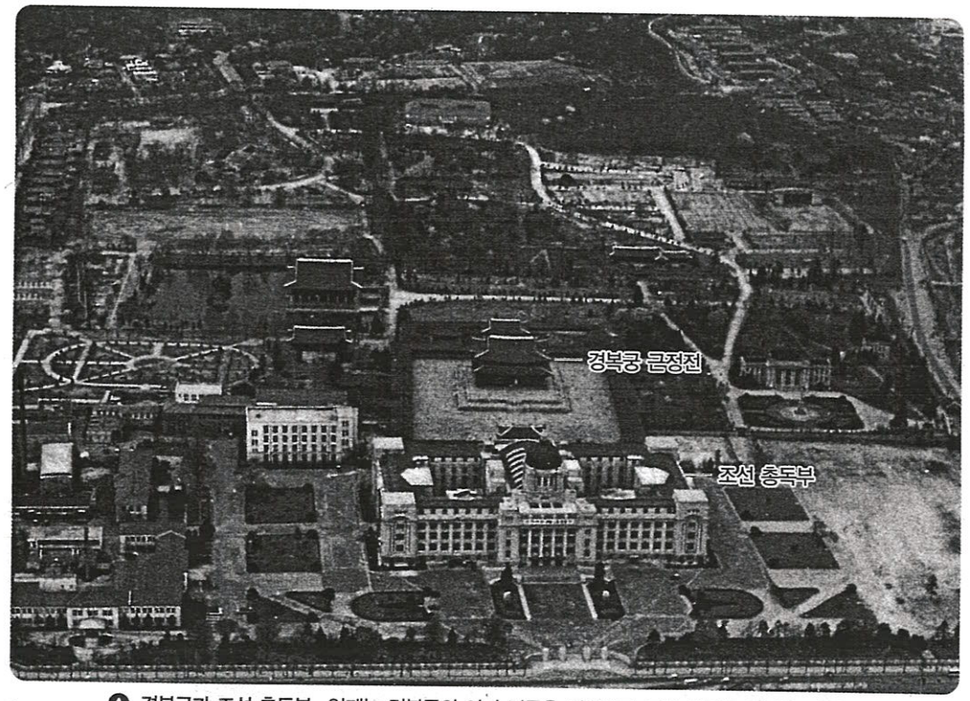
대한 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에 대부분 일본인을 임명하였고, 일부 친일파들을 보좌역이나 앞잡이로 내세워 식민 지배에 이용하였다.

헌병 경찰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고, 한국인의 일상생활까지도 철저하게 감시하였다. 또 우리 민족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하여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 **헌병 경찰제**
헌병(군대 내의 경찰)에게 민간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게 한 제도.

▲ 칼을 차고 있는 교사들



▲ **경복궁과 조선 총독부** 일제는 경복궁의 여러 건물을 훼손하고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다.

헌병 경찰에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였다. 살아남아도 감옥에 갇혀 질병과 중노동,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제는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한국인에게는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태형령

태형은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었다. 최대 100대까지 집행된 태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당시 사람들은 태형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태형 제도에 의해 일본 순사*는 그들이 원한다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한국인을 때릴 수 있었다. 그들은 해마다 수만 명에게 태형을 가하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가혹하였던지 남는 것이라고는 줄지어 늘어선 불구자와 시체뿐이었다."

▲ 태형 틀

* 순사
일제 강점기 낮은 계급의 경찰관.

▼ 서대문 형무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운동가들이 끌려와 모진 고문을 당한 곳이다.

▲ 토지를 조사하는 일본인 관리들

1910년대에 일제는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 주인은 자신의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신고하지 않은 토지나 나라의 토지, 주인이 불명확한 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의 국유지로 편입시킨 후 일본인에게 싼값으로 팔았다.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이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였다. 비싸진 토지 사용료와 늘어난 세금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렸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보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아 국내에는 쌀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민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들도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힘든 일을 하였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은 날품을 팔거나 구걸하며 먹고살았고, 주로 도시 주변 토막집*에서 살았다.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 토막집
땅을 파고 가마니 등을 엮어 만든 움막집.

▼ 국외로 떠나는 한국인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일제의 강압적 통치가 계속되던 때 서양의 여러 나라는 편을 나누어 전쟁을 벌였다(제1차 세계 대전, 1914~1918년).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는 데 근거가 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 선언식을 하였고, 국내에서는 고종 황제 독살설이 퍼져 일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전국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 민족 대표들의 독립 선언 모습(독립 기념관)

1919년 3월 1일,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은 서울의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하였다.

宣言書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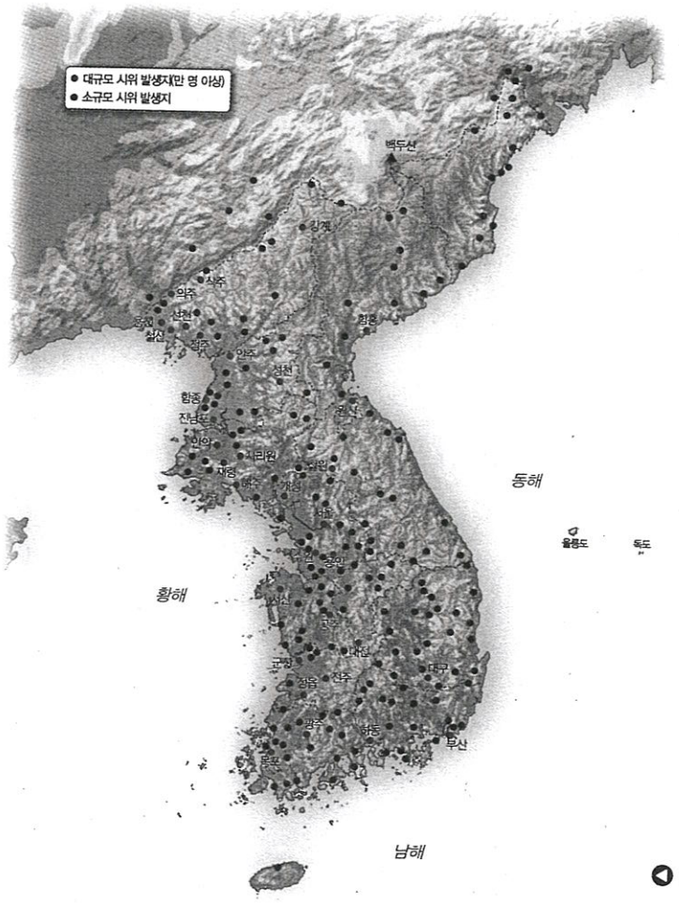
朝鮮民族代表

▲ 3.1 독립 선언서(독립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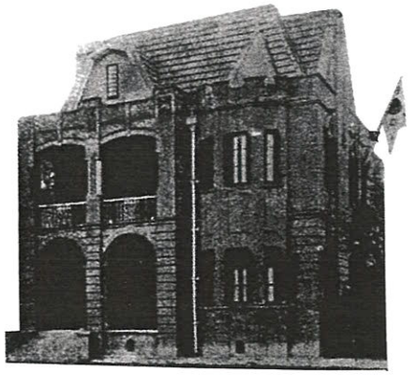
같은 시각,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은 탑골 공원에 모여 독립 선언식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다(3.1 운동, 1919년).

일제는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시위 군중에게 총을 쏘고 마구 체포하였다. 화성 제암리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총을 쏘아 죽인 뒤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만세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만주, 연해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일어났다.



◀ 3.1 운동 당시 시위 발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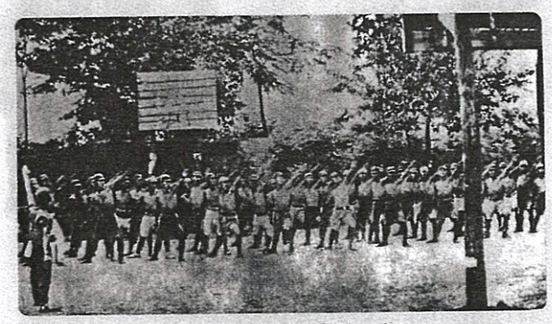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중국 상하이)

3.1 운동을 계기로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 임시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이 편리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는 법을 만드는 일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비밀 연락망을 조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다.

한국광복군 창설



한국광복군의 훈련 모습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본이 중국 내륙까지 침략해 오자 정부를 충칭으로 옮겼다. 그리고 1940년에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제에 공식적으로 선전 포고를 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까지 군대를 파견하여 대일 전쟁에 동참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자주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일제의 항복을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광복군을 국내에 진입시켜 미군과 함께 일제를 몰아낼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먼저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 대전 때 일본과 연합국(미국, 영국 등) 사이에 벌어진 전쟁(1941~1945년).
* **진공** 적을 공격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유관순이 고향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감옥에 갇힌 유관순

이화 학당에 다니고 있던 유관순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확대되자 일제는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다. 유관순은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함께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자 유관순은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일제의 헌병 경찰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고, 유관순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되었다. 유관순도 일제의 헌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유관순은 법정에서도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다 서대문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큰 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그때마다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유관순은 감옥에서 저항하다가 19세의 어린 나이로 순국하였다.

아우내 독립 만세 운동 기념 공원의 조각상(충청남도 천안)

3.1 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무력만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통치 방법을 바꾸었다.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경찰력을 더 강화하였고, 신문을 미리 검열하여 식민 지배를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통치는 식민 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고 친일 세력을 늘려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것이었다.

민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국산품을 애용하고 근검절약 등을 실천하여 민족 기업을 키우려고 하였다. 또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서 민족 교육을 담당할 대학 설립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 물산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

한편,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기차로 통학을 하던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 학생들은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하였다.

물산 장려 운동 신문 기사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1927년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 단체인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신간회는 한국인 위주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의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또 다양한 사회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3.1 운동 이후 무장 독립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여러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경찰서나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만주까지 쫓아와 독립군을 공격하였고, 독립군 부대는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 독립군에 패한 일본군은 만주에 있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고, 독립군 부대의 활동은 점점 어려워졌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지역

봉오동 전투

홍범도

독립군에게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만주의 봉오동까지 독립군을 쫓아왔다. 홍범도 부대는 계곡을 따라 산 중턱에 매복*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한 뒤,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하였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포위망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홍범도 부대는 도망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하여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 매복 상대편의 움직임을 살피거나 상대편을 갑자기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는 것

청산리 대첩

김좌진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대규모 부대를 만주로 보내 독립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김좌진과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은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깊은 청산리에 매복해 있다가 쳐들어온 일본군 부대를 공격하였다. 독립군은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전투 끝에 크게 승리하였다.

▲ **김구**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이끌었으며, 주석이 되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한편, 192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이끌던 독립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에 김구는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였다. 특히 이봉창, 윤봉길 등의 의거는 중국인에게 감명을 주었고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봉창 의거

1932년 1월, 일본의 도쿄에서는 일본 왕 히로히토가 탄 마차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도로 옆 군중 속에 있던 이봉창이 뛰쳐나와 일본 왕이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그러나 폭탄이 마차의 뒤편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일본 왕을 명중시키지 못하였고, 이봉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된 이후 순국하였다.

▲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32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중국군과 일본군의 무력 충돌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일본인이 훙커우 공원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윤봉길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사람들과 함께 공원에 들어갔다.

행사가 한창일 때 윤봉길은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큰 폭발과 함께 상하이 파견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일본인이 쓰러졌다. 윤봉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 윤봉길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이회영은 조선 시대의 명문가 자손으로, 그의 집안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이회영은 동지들과 함께 만주를 돌아본 후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는 것을 구상하였고, 이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형제들에게 "큰 뜻을 위해 죽을지언정 왜적 밑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하게 이어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자고 권유하였다. 이회영의 권유를 받아들인 형제들은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여 만주로 갔다.

▲ 이회영

만주로 간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은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러 냈다.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가족 대부분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

한 집안 모두가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큰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경우는 흔치 않다. 이회영과 그 일가의 희생은 독립운동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 이회영과 그의 형제들이 만주로 떠날 계획을 하는 모습(유당 기념관)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 강제로 참배하는 학생들

일제는 국권 침탈 이후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쳤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를 거짓으로 꾸며 가르쳤다.

특히 일제는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이 하나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민족정신을 없애려고 하였다.

일제는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을 짓고,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워 한국인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또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을 외우도록 하였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였다.

* 신궁
신사(일본 왕실의 조상, 국가에 공이 큰 사람 등을 신으로 모신 사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시설.

일제 강점기 어느 학생의 생활

일제는 쌀 한 톨까지 모두 빼앗아 가고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쌀이나 고무신을 배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호적을 만들어 주지 않아 학교를 가려면 일본식으로 이름부터 바꾸어야 하였다.

집에서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한국말을 쓰면 안 되었다. 동네에서도 친구끼리 서로 감시하고, 학교나 동네에서 우리말을 사용한 아이는 선생님께 불려 가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공책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당하였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방학 중에는 뭘 하겠느냐고 질문을 해서 나는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말을 더 배우고 오겠습니다."라고 일본어로 대답을 하였다. 내 딴에는 선생님 앞에서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뽐내 칭찬을 받아 보려고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교무실에 순사들까지 와서 어린 나를 다그쳤다.

– 일제 강점기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어느 할아버지의 증언 –

1930년대 이후 일제는 중국 대륙을 침략하였고, 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하였다.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끌고 가고 빼앗아 갔다.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많은 한국인을 광산이나 공장으로 보내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는데, 그중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에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지하자원과 금속을 강제로 가져갔다. 또 군인들의 양식이 될 만한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도 많이 빼앗아 갔다.

▲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

* 군수
무기 등 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자.

◀ 놋그릇을 강제로 거두어들인 모습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맞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우리의 민족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윤재, 최현배 등은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 박은식, 신채호 등은 한국사에 관한 책을 써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렸다. 이 외에도 한용운, 심훈, 윤동주, 이육사 등은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으로 항일 의지를 표현하였다.

일제 강점기 국어학자의 저항

조선어 학회 회원들

이윤재,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된 조선어 학회는 한글 연구 및 강습회 개최를 통하여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 그들의 노력에 힘입어 일제의 한글에 대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한글을 접하게 되었고, 한글 쓰기에 동참하였다.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여기고 탄압하였다. 이때 편찬 중이던 국어사전 원고를 빼앗겼고, 학자들은 끌려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기도 하였다. 다행히 광복 이후 빼앗겼던 원고의 일부를 되찾아 한글 학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큰사전』을 만들었다.

* 한글 학회 8.15 광복 후 조선어 학회를 새로 고친 이름.

일제 강점기 역사학자의 저항

신채호

일제는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 왔고 자기 힘으로 발전할 능력이 없으며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여,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일찍이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 나라를 구한 위인들의 전기문을 써서 애국심을 높였다.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사를 새롭게 연구하였고, 고조선과 고구려 등에 관한 역사책을 써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였다.

! 내가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다면 독립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작은 이야기 큰 역사

윤동주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였을까

윤동주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에 간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고국으로 돌아와 평양의 숭실중학교와 서울의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윤동주는 항상 우리 민족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시를 써서 민족이 처한 어려움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면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염원하였다. 그러나 윤동주는 일본 유학 중 항일 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제에 잡혀갔고, 1945년 2월,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일본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윤동주의 시에는 독립을 향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

▲ 윤동주 생가(중국 룽징)